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River & Culture



이인수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사무국장
(ainl@naver.com)

북하천의 역사와 문화

북하천(福河川)은 이천시를 상징하는 하천으로 이천의 젖줄이다. 북하천은 용인시 동쪽에서 발원하여 이천시 마장면으로 흘러들면서 관리천과 만나고, 이어 호법면을 가로 지르는 동안 매곡천, 동산천, 원두천 등과 만나서 큰 내를 이룬다. 다시 구 이천읍·백사면과 부발읍의 경계를 이루면서 북동쪽으로 흘러서 여주군 흥천면에서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북하천은 그 본류와 지류들을 따라 넓게 펼쳐진 들판에 농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곳이 옛날부터 품질 좋기로 이름난 이천쌀의 주 생산지였다.

옛날에는 북하천의 수심이 깊어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배들이 물길을 따라 이천읍내 근처까지 들어와 이천의 특산물인 쌀을 직접 한양으로 실어 날랐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하천 지류인 신둔천변에 지금도 남아 있는 '배증개'라는 지명이다. 배증개는 한자로는 이증포(梨增浦)라고 쓰는데 배에 짐을 부리던 곳이라는 뜻의 '벉짐개'가 변형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요즘의 북하천은 장마철을 제외하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물이 줄고 있는 북하천을 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의 하나라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강이나 시냇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다. 그러나 때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겉잡을 수 없이 난폭하게 변해서 주변에 모든 것들을 찢고 할퀴거나 송두리째 쓸어가 버리기도 한다. 지난 여름에도 예외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인해 목숨을 잃고 다치



〈그림 1〉 옛 지도 속의 북하천

거나, 소중한 집과 재산을 잃는 등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필자는 평생을 살면서 복하천의 성난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웬만한 물난리에는 끄떡없는 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 같은 복하천이 곁에 있어서 이전은 복받은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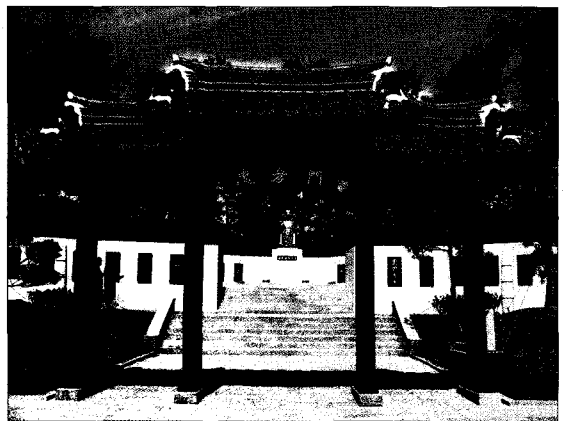
1. 복하천과 이전의 유래

이전은 고을 이름부터가 물과 관련이 깊은 고장이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 때의 이름은 남천현(南川縣)인데, 고구려 쪽에서 볼 때 남쪽 냇가에 있는 고을, 즉 복하천 곁에 자리 잡은 고을이다. 신라의 진흥왕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남천주(南川州)로 승격시켜 군주를 두었고, 삼국통일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남천정(南川停)을 두어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다. 신라는 마침내 서기 660년(태종무열왕 7년) 왕이 직접 김유신 등의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공략을 위한 출정길에 오르는데, 경주를 출발한지 22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남천정이다. 남천정에 주둔한 태종무열왕은 태자를 덕물도로 보내서 바다를 건너온 당의 소정방과 만나게 함으로써 나당연합군에 의한 본격적인 백제 공격작전이 시작된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남천정은 신라의 전방 지휘본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문무왕도 고구려 공략에 앞서 남천정에 주둔하고 당의 지휘관과 만난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성취한 뒤인 757년(경덕왕 16년)에 이전은 황무현(黃武縣)으로 개칭되었으나, 남천정만은 신라 10정의 하나로 통일신라 후대까지도 존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천정의 위치는 설봉산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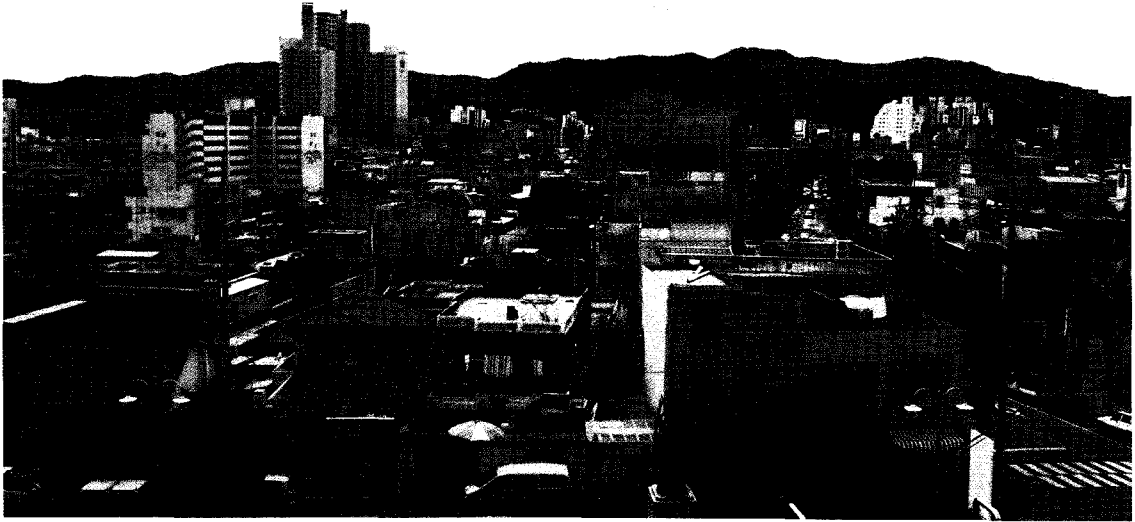
이전(利漣)이란 고을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고려 건국 초인 서기 936년(태조 19년) 9월,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군과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출정길에 올라서 이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마침 홍수가 나서 탁류가 굽이쳐 흐르는 복하천을 건너지 못하고 군사를 되돌려야 할 판국인데, 근처 효양산에 살던 이전사람 서목(徐穆)이란 이가 앞장 서서 물길을 잘 인도하여 모든 군사들이 무사히 냇물을 건널 수 있었다. 그 후 신검군을 격파하여 후삼국 통일의 꿈을 성

취하고 개선한 태조가 서목의 일을 가상하게 여겨 이전이란 이름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고을 이름이 생기게 된 내력이다. 혹은 태조가 남정길에 이전에 주둔하면서 점을 쳤는데 '이섭대천(利涉大川)'이란 점괘를 얻고 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괘에서 따다가 이전이란 고을 이름을 내렸다고도 한다.

고을 이름과 관련된 서목의 일화는 당시 이 지방의 대표적인 토호세력으로 추정되는 이전 서씨들이 태조의 군대를 도와 고려 건국에 공헌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성종 때 명재상으로 거란 대군의 침입을 적장과의 담판으로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서희(徐熙)를 배출한 이전 서씨들은 신라 아간 서신일(徐神逸)을 시조로 하고 있다. 복하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발읍 효양산(孝養山)은 이전 서씨들의 발원지다. 통일신라 말 서신일이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이 산 속에 숨어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쫓기는 사슴을 숨겨 주게 되었다. 그 은공으로 효양산 신령의 계시를 받고 나이 8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서희의 부친으로 광종 때 내의령을 지낸 서필(徐弼)이며, 아들 희와 손눌(徐訥)까지 조손 3대가 나란히 최고 벼슬을 지내고 임금 묘정에 배향되는 등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 시조의 묘가 효양산 동쪽 기슭에 있다.



〈그림 2〉 충효동산의 서희 선생상



〈그림 3〉 시내에서 바라본 설봉산

2. 설봉산과 중리천의 문화유산

설봉산(雪峯山)은 해발 394m의 그리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 산이지만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기념물들이 모여 있는 이천의 진산이다. 울창한 숲과 오밀 조밀한 계곡, 설봉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볼 만하다. 설봉산에서 발원한 작은 시냇물들이 설봉호수로 모여서는 중리천을 통해 시내를 관통하여 북하천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중리천은 과거의 청계천이 그러했듯 대부분이 두터운 콘크리트 속에 묻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설봉산 동북쪽, 속칭 칼바위 일대를 둘러싸고 축조된 설봉산성(雪峯山城)은 옛 문헌에 주위가 1,500보라고 나오는데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둘레가 1,079m로 밝혀졌다. 설봉산성은 1916년 당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처음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함경도 방면의 고구려식 산성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밝힌 후부터, 고구려가 쌓은 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이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오랜 세월을 흙속에 묻혀 있던 산성의 하부 구조가 백제식 축조방식으로

쌓은 사실이 밝혀져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따라서 설봉산성을 처음 쌓은 나라는 백제이며, 그 후 신라가 성벽을 다시 수축하여 북방 경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봉산 주봉 기슭에 높다랗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천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영월암(映月庵)은 통일신라 초반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유물들로 볼 때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로는 영월암마애보살입상(映月庵磨崖菩薩



〈그림 4〉 영월암 마애보살상

立像-보물 822호)과 삼층석탑, 석조광배 및 연화좌대, 석조(石槽) 등이 있다. 영월암 마애보살입상은 영월암 대웅전 뒤편 산자락, 남쪽을 향한 넓은 바위면에 새겨져 있다. 머리는 둥근 소발에 지그시 감은 눈과 후덕하게 생긴 코,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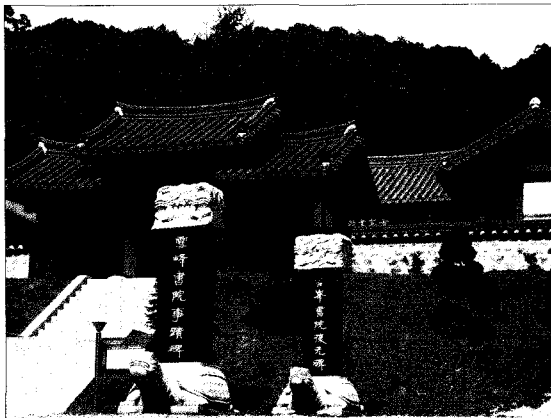
툭한 입술을 하고 있으며, 귀가 목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상호에서 풍기는 전체적인 인상은 위

엄 있는 고승이 두 손을 합장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다. 법의는 우견편단으로 옷주름이 부드러운 사선을 그리면서 무릎 아래까지 흐르고 있고, 수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후 손바닥이 밖을 향하도록 하였다. 전체 높이가 10m에 가까워서 마애불상 중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영월암으로 오르는 길목 오른 쪽 산기슭에 웅장한 숲과 계곡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설봉서원(雪峰書院)이 있다. 설봉서원은 서기 1504년(명종 19년)에 당시 이천부사로 있던 정현(鄭顯)이 관아 동쪽 안흥지 연못 상단에 건립하고 서희·이관의(李寬義)·김안국(金安國) 3인을 제향했다. 서기 1592년(선조 25) 설봉호수 입구 쪽으로 이관하여 조선 후기까지 향사를 이어 오다가, 1870년(고종 7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2006년 10월, 옛날 절터였던 지금의 자리에 다시 복원하여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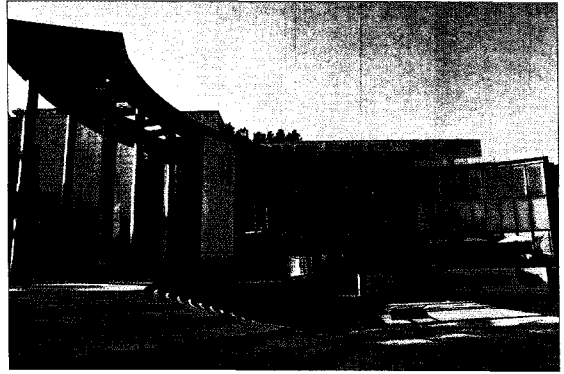


〈그림 5〉 설봉호수의 봄 풍경



〈그림 6〉 설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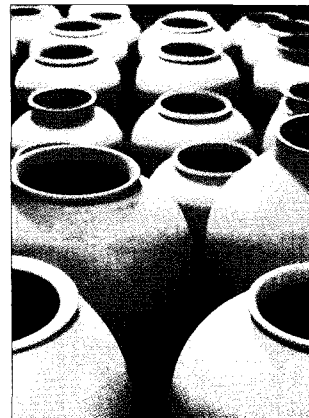
설봉산에서 흐르는 작은 계곡물들이 모여드는 설봉호수와 호수를 낀 설봉공원은 이천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이며 사철 문화가 숨 쉬는 공간이다. 공원 일대에는 지난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가 열렸던 이천세계도자센터를 비롯해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충효동산, 조각공원 같은 시설물들이 모여 있으며, 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전람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줄지어 열리는 곳이다.



〈그림 7〉 월전미술관

3. 신둔천의 문화유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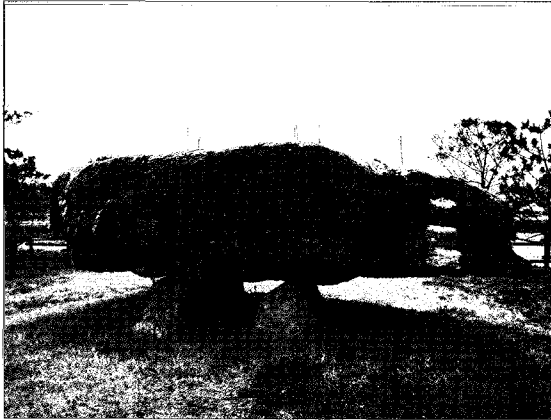
북하천으로 모여드는 여러 지류들 중에서도 가장 긴 신둔천은 다른 이름이 ‘한내’인데 한내란 곧 큰 내(大川)를 말한다. 신둔천 상류 지역인 신둔면 수광리 일대는 도예촌으로 잘 알려진 이천도자기의 산실이다.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과 함께 좋은 물도 필요하다. 수광리는 어디서나



〈그림 8〉 이천의 명물 도자기

샘이 잘 솟는다고 해서 옛 이름을 수출리(水出里)라고 했으니 이천도자기의 명성이 우연처럼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용기를 구웠던 이곳에 1960년대 말부터 도자기 가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자기 마을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림 9) 신둔면 지석리 고인돌

북쪽을 원적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시냇물을 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신둔면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기 좋은 입지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지석리와 도암리 일대에 흩어져 있는 지석묘들이 이를 증명한다. 지석리(支石里)란 마을이름 자체가 고인돌의 존재에서 생긴 이름인 것이다. 장동리에서는 초기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석관묘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광리 3번 국도 옆에는 호조판서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김길통(金吉通)의 묘가 있다. 김길통은 세종 때 문과 급제하여 집현전 부제학과 전라도 관찰사, 대사헌 등을 지냈으며, 성종 때 호조판서로 예문관 대제학을 겸했다. 성삼문·박팽년과 시문을 주고받고 생육신 김시습·이맹전과도 친했는데, 사육신 정란 이후, 그들과 뜻을 함께 하지 못한 일을 두고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전한다.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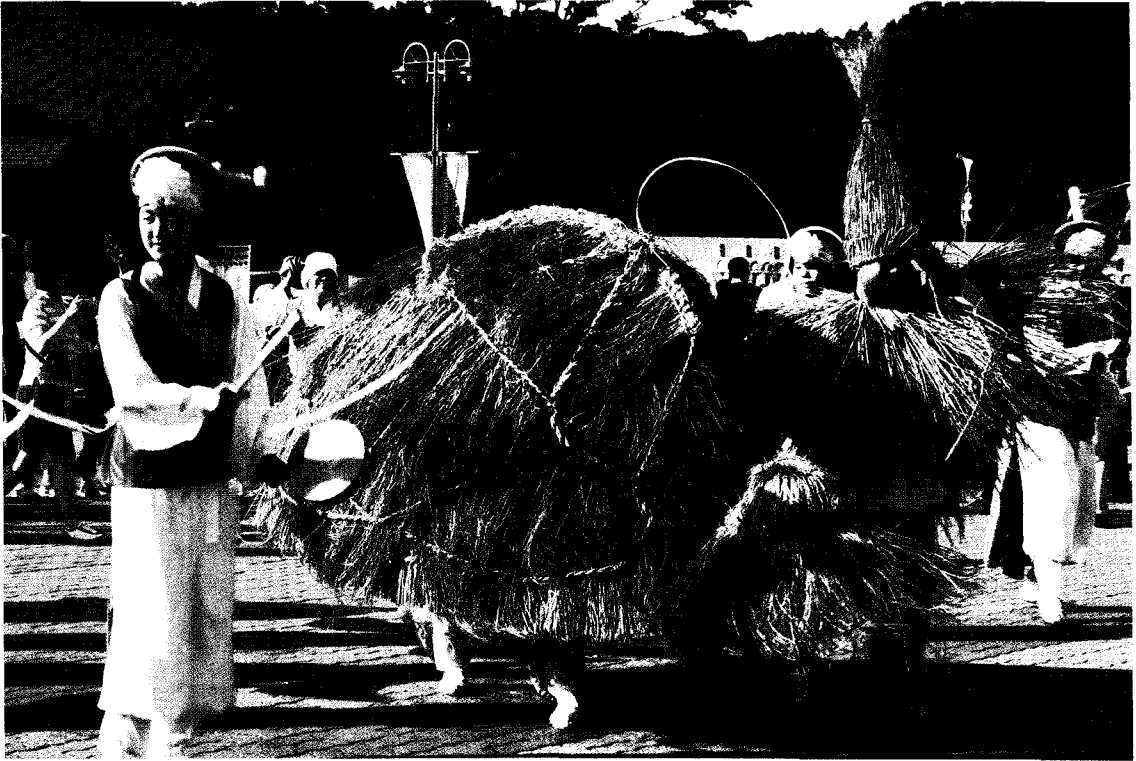
이천시와 광주시 경계에 있는 넓고개(廣峴)는 옛부터 서울에서 삼남지방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지금도 3번 국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넓고개 마루턱에 서있는 이천 의병전적비는 1896년 1월 이천의병들이 이곳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눈부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1895년(고종 32) 말부터 이듬해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운동은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맞서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한말 의병항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의병운동에 불을 댕긴 것은 명성왕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과 이 해 음력 11월

에 공표된 단발령이었다. 서울에서 단발령을 피해 이천으로 내려온 김하락(金河洛)과 구연영(具然英)을 비롯한 다섯 명의 동지들은 즉시 의병모집에 착수하여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하고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항쟁의 기치를 내걸었다. 1896년 1월 18일 새벽, 일본군 수비대의 병력 1백명이 의병 토벌을 위해 이천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넓고개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의병들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해가 저물고 초생달이 뜰 때까지 온종일 계속된 이날 전투에서 이천의병들은 일본군을 거의 섬멸하는 눈부신 전과를 거두었다. 이 넓고개 전투는 우리 의병들이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날 승리는 이후 다른 지역의 의병활동을 고무시켜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김하락의 이천의병진은 그 후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더욱 군비를 강화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등 기세를 올렸으나, 뜻하지 않은 동지의 배신으로 성을 빼앗긴 후 멀리 경상도 지방까지 부대를 이동해 가면서 항쟁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해 여름 김하락 대장이 영덕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숨지면서, 이천의병들의 끈질긴 항쟁도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천의병진의 중군장으로 활약했던 구연영은 뒤에 기독교 전도사가 되어 이천지방을 중심으로 구국회를 조직하고 구국운동을 펴다가, 1907년 7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이천경찰서에서 순국하게 된다. 이 무렵에 일어난 이천총화사건(利川衝火事件)은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군이 무자비한 보복으로 수백 호나 되는 일반 백성들의 집을 불태워 버린 사건이었다.

4. 농경문화의 상징 이천거북놀이

옛날부터 이천은 땅이 기름지고 가뭄과 흉수의 피해가 다른 곳에 비해 덜했던 탓에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한 고장이었다. 과거의 이천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리는 진상미로 알려진 자채쌀이 유명했는데, '자채(紫彩)'란 원래가 조



〈그림 10〉 이천 거북놀이

선시대의 농사서에도 등장하는 재래종 벼의 한 품종 이름을 말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자채벼는 다른 지방에서는 자라지 않고 유독 이천 지방에서만 재배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복하천 유역의 기름진 땅이 자채벼의 주 생산지였다. 그러나 자채벼는 뛰어난 밥맛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래종 벼들과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다수확 신품종에 밀려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자채쌀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천쌀은 가장 품질 좋은 쌀이란 명성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천의 농경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세시 풍습 민속놀이인 거북놀이다. 이천거북놀이는 일년 중 가장 농촌이 풍요로울 때인 추석날 저녁 휘영청 밝은 대보름 달빛 아래서 신명나게 이루어진다. 거북이는 장수 동물이며 동해 용왕의 아들로서 인간생활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다. 놀이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예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던 거북 송배의 민속 신앙과 지신밟기 같은 마을의 대동놀이가 결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본다.

추석이 가까워 오면 마을 청년들이 들판에 나가 수숫잎을 따다가 이엉을 엮어서 거북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놀이 준비가 시작된다. 추석날 저녁, 보름달이 동실 떠오르면 거북이를 앞세운 풍물패가 마을을 돌면서 신명나는 춤과 풍물가락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우물굿 등 마을 순회가 끝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어 주는데, 그 형식은 지신밟기 굿이나 걸립과 비슷하고 거북이를 앞세우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주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데, 방문한 집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내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일행을 대접한다.

이 날 놀이를 통해 거두어들이던 돈과 곡식은 마을의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졌으니, 거북놀이는 집단놀이면서 주민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의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다. 거북놀이는 이천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연희된 흔적이 있으나, 농촌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이천시 대월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현되어 이천지방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굳

어지게 됐다.

중리천의 지류 중 하나가 시작되는 망현산(望峴山) 기슭에 자리 잡은 이천향교는 1402년 (태종 2) 감무 변인달(邊仁達)이 세웠으며, 양촌 권근(權近)이 기문을 지었다. 중리천변에 있는 안흥지(安興池)는 조선 초기 안평대군이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유서 깊은 농업유적 중에 하나다. 안흥지 위에 새로 건립한 애련정(愛蓮亭)은 조선 성종 때인 15세기 후반에 이천부사로 있던 이세보(李世瑈)가 세웠는데 월산대군이 이정(李婷)과 서거정(徐居正) 같은 당대의 이름난 문객들이 이

곳의 빼어난 경치를 두고 읊은 시들이 전해 온다. 이천의 이름난 명소 중 하나로 시인묵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한말 혼란기에 없어졌던 것을, 1998년에 다시 중건하였다.

보물 제982호인 장암리 태평흥국명 마애보살반가상,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산내리 충성공권군(權鈞)묘, 효양산 토성, 가좌리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묘, 도립리 육괴정(六槐亭)과 현방리 고인돌, 천연기념물 백송(白松)과 반룡송(蟠龍松) 등도 북한천 유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천의 문화유산들이다. ●



〈그림 11〉 천연기념물 이천백송